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이 정 주*

I. 들어가며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무게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망각과 금기의 주제로 간혀 있었다. 지난 50년 동안 4·3은 국가의 해석과 공식입장에 따라 '공산폭동'으로 불리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으로 엄격하게 제약하였다. 4·3에 관한 글은 판금되었고,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군부 정권은 4·3을 은폐시켰을 뿐만 아니라 논의 자체를 철저히 금기시켰다. 다만 당시 죽은 자들의 제사의식이나 무속굿과 같은 비공식적·일상적 삶의 맥락을 통해서만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 왔다(김성래 1991b, 12). 그러나 1980년대 사회 민주화 운동의 전개에 따라 1988년부터 4·3에 관한 연구물들과 문학작품들이 잇따라 출판되면서 4·3 연구는 본격화되었다.

지금까지 나온 4·3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초기 4·3 연구는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공식 역사 서술에 대항하기 위해 민중항쟁으로서의 4·3을 부각시켰다. 국가가 반공주의라는 효과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민중항쟁론은 폭동으로 규정된 민중들의 저항을 외부에서 제주도로 들어온 극우세력(미군정, 경찰, 서북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사)또 하나의 문화 사무차장

청년단)의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으로 해석하여 정당화하고자 했다.

1990년대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마을별 현지조사가 시작되면서 4·3 연구는 4·3의 저항의 측면보다는 학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의 희생자의 관점에서 4·3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기 시작했다. 기존 4·3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별 현지조사는 진상 규명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서로 비교하여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다. 연구자들과 증언 채록자들은 각 마을 단위에서의 4·3 전개 과정과 피해 사례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장대나 토벌대 활동을 했던 사람, 조사 마을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말해 줄 사람을 증언자로 찾는다. 그리고 증언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힐 수 있는 질문만을 한다. 이 때 증언자로 선택된 여성은 피해 사례를 이야기 하며 자신의 경험과 느낌, 태도, 가치, 의미 등을 말하고자 하지만 기록자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여성 개인의 '신세타령'이나 고생담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할머니들은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혼자서 자식들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유철인 1998b, 40)에, 남성 연구자들은 여성을 중요 정보자로 선택하지 않았다. 남성 기록자들은 성별을 역사 분석의 기본 범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의 관점과 경험에 기반하여 4·3을 기술한 후, '제주도민'이라는 하나의 보편적 범주로 묶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남성의 것과 동일시하여 일반화했다.

4·3은 다양한 층위들이 중첩된,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성별, 연령, 태도와 입장, 그리고 중산간(中山間)이나 해안이나라는 마을의 위치에 따라 4·3의 피해상황은 다르다. 따라서 4·3을 경험한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4·3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 경험의 주체는 특정한 지역적 맥락 속에 위치해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을 모두 동일한 4·3 피해자로 전제하여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험의 차이를 덮어버리고 4·3 경험을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개인과 4·3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그리고 기존 4·3 연구는 4·3에 대한 진상규명에만 집중함으로써, 4·3을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르게 하였다. 4·3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전히 제주도민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다. 4·3이 야기한 대량 살상과 마을 공동체 파괴, 그에 따른 인구 이동은 제주 지역 공동체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4·3의 대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뿌리깊은 피해의식을 내면화시켰다. 4·3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4·3이 제주 지역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변화들을 초래하였는가라는 4·3의 현재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4·3 당시 피해가 컸던 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 마을에서 4·3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4·3으로 인해 마을에는 어떤 변동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같은 역사적 경험들이 현재 주민들의 삶과 의식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마을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을 역사 분석의 기본 범주로 설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그들이 가진 성별에 따라 4·3이라는 동일한 현실을 다르게 경험하였음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4·3을 겪은 여성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애사를 기록하였다.

1. 연구방법 : 구술 생애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4·3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들은 균경의 정보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4·3 경험자들이 남긴 기록이나 증언에 기초한다. 그런데 4·3 당시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단혀 있던 시기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일기나 메모, 회고의 형식으로 4·3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기록으로 남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록된 자료들만을 토대로 4·3에 접근한다면, 여성들의 경험은 상당 부분 묻혀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자나 기록에 기반한 문헌 중심적 역사 쓰기 이외의 새로운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4·3 연구에 있어, '통계적 수치'의 수집 뿐만 아니라 '측정 불가능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숫자, 피해 정도는 4·3이라는 사건의 크기와 역사적인 무게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러나 수치로 측정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경험들이 존재하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4·3 피해 신고실'에 접수된 피해 정도를 보면, 4·3 당시 남성 사망자는 9,192명이며 여성 사망자는 2,443명이다(제주도의회 1997, 49). 이 숫자는 4·3 당시 남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피해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들은 직접적인 죽임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성적 폭력들을 겪었으며, 남자형제나 집안을 위해 토벌대와 강제결혼을 해야 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자로서 모진 고통을 감내했다. 이런 경험들은 수치화될 수 없는 것들이다.

4·3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헌 자료나 기존 연구가 극히 적기 때문에 증언과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구술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부족한 문헌 자료를 보충하거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그 위치를 한정짓는다. 구술 자료는 역사적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이며 사적(私的)이고 부분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역사 연구가 실증주의적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술 자료를 역사적 자료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4·3 연구의 성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애사¹⁾ 자료와 같은 구술 자료는 4·3과 같이 기록된 자료가 부족한

1) 생애사는 전기, 자서전, 구술사 및 개인 자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생애사는 다른 사람에게 구술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된,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의미한다.

사건이나 통계적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원으로,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 생애사 자료의 유용성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주관적인 의미에 대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에 제한되지 않는다. 생애사 자료는 삶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누려온 이론들이 특정 인종이나 성, 계층 집단의 당파성을 가진 부분적 진실이었음을 지적하고, 삶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을 해체하는 이론적·방법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Reinharz 1992, 126-131; Geiger 1986, 336).

이러한 점에서 여성 생애사는 두가지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 생애사는 국가가 국사(National History)라는 지배 담론을 통해 4·3 역사를 국유화하는 것에 대항하여, 4·3에 대한 제주 민중들의 기억과 경험을 재현하는 한 양식으로서, 실제적으로 제주 민중들의 4·3에 대한 경험이 국가의 공식 역사와 어떻게 다른지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국가가 4·3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고 망각을 강요하는 현 상황에서 하나의 정치적 실천 행위가 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관점과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여성 생애사는 기존 4·3 역사 서술이 갖는 남성 중심성을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여성 생애사는 그동안 ‘제주도민’이라는 보편 범주로 묶여 왔던 여성과 남성이 실제적으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영역에서 각각 다른 경험세계와 의식세계를 이루고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기존 4·3 역사 서술은 이 경험의 ‘다름’을 간과해왔다. 여성 생애사는 남녀간의 경험의 ‘다름’을 생산해내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이를 변화시킬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

2. 현지 조사지

본 연구는 4·3 당시 피해가 컸던 중산간 마을 중의 한 마을을 연구 대

상지로 정하였다. 그 마을의 이름은 ‘호미’²⁾라 부를 것이다. 중산간 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해안 마을에 비해 중산간 마을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무장대가 주로 산간 지대와 중산간 마을을 무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토벌대는 이들 중산간 마을을 적성지대로 간주하여 중산간 마을 초도화를 행하였다. 중산간 마을 주민을 모두 해안지대로 소개(疎開)한 다음, 무장대가 은거할 수 없도록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린 것이다. 이 전략으로 인해 ‘호미’마을도 모두 불태워졌으며, 주민들은 근처 해안 마을로 소개되었다.

중산간 마을 중에서도 ‘호미’마을을 선택한 것은 피해가 컸던 마을이지만 비교적 재건이 잘 된 마을이기 때문이다. 소개 후 마을이 다시 복구된 곳은 유림촌이거나 비교적 오래 전에 형성되어 살기가 괜찮았던 마을들이었다. ‘호미’마을은 4·3 당시 350호 정도의 가구가 있었던 큰 부락으로서 양반촌이라 불리웠던 마을이다. 농토가 좋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어서 빈부의 차가 없이 고루 잘 사는 편이었다. 그러나 4·3을 거치면서 300여명의 마을 주민이 희생되었고, 전체 가구의 70%가 흩어³⁾ 가구가 되었다. 4·3이 끝난 후 마을 재건이 이루어졌으나, 100여 가구가 넘는 옛마을 일부는 끝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 지금은 집 한 채 없는 옛마을터로 남아있다.

3. 현지 조사과정 : 4·3 연구의 윤리적·정치적 문제

‘호미’마을에서 4·3은 일종의 단혀진 세계, 비밀스런 세계였다. 4·3의

2)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마을 이름 대신 ‘호미’라는 가명을 쓰고자 한다. 제주도에 호미는 육지의 낮을 가리키는 말이며, 육지에서 호미라 불리는 농기구를 제주에서는 끌쟁이³⁾라 부른다. 제주에서 호미는 모든 농작물의 수확에 사용되며, 특히 여성들의 김매기 작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농기구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조사 마을이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무기명으로 기재하였다.

3) ‘홀어미’ 즉 여성가장을 가리키는 제주말

대량학살과 인권 침해, 그리고 마을 파괴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마을 공동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마을 주민들은 4·3 이후 40년간 지속된 반공 군사정권 하에서,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밝히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 경험을 숨긴 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밖으로 표출될 수 없는 정서와 한은 안으로 쌓일 수밖에 없었고, 4·3 생존자들은 의식적으로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고 억압하였다. 억제는 흔히 증언 거부로 나타났다. 한 연구참여자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한 5년 전에 MBC에서 와서 날 보고 4·3사건 때 어떠했는지 말해 달래. 나는 분기도 모르고 그냥저냥 말하면 간첩으로 잡아갈까 봐, 그때 무슨 뭐 말도 못했지” 마을 주민들 중에는 “세상이 다시 어지러워지면 내 발언이 문제가 될 게 아니냐”며 공식적 자리에서 4·3을 증언하기를 꺼리고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4·3 특위가 피해조사를 벌일 때 신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건 일절, 아무 피해 신고도 하지 마라, 아무 것도”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4·3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누가 질문하는가, 옆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구술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였다. 연구자는 6주간 '호미'마을에서 연구참여자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연구 동기를 설명한 뒤, 그들이 자신에 관해 이야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제까지 말하지 않고 숨겨왔던 '공공연한 비밀'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연구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의 대화가 비공식적·일상적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대화의 맥락성은 부분적으로는, 미혼의 젊은 여성이라는 연구자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함께 밥을

4) 생애사 구술의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해석자, 대담자, 연구대상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운다. 그런데 구술자는 연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록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술자의 행위성,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명명할 것이다.

먹으면서, 함께 누워 잠을 자면서, 혹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에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로 형성되었던 신뢰관계 속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본 연구는 많은 윤리적, 정치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가 현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든 간에 연구자가 현지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현지 사회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다. 연구자는 마을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찾게 되고, 자신의 일을 도와 주는 연구참여자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을 정보원으로 대상화시켜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기억해내고 싶어하지 않는 경험들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때, 연구자는 심한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4·3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또 어떤 이는 4·3이 남긴 공포와 고통으로 4·3을 기억하기조차 싫어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그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이 겪었던 4·3에 동참하고자 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입장 뿐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4·3에 관한 기억은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 50년이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그 기억은 과거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의 사실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며, 그 기억에는 개인의 상상과 해석이 개입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연구자는 마을 내에서 연구참여자들간의 증언의 차이를 비교 검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공식적인 장에서 발언된 4·3에 관한 언설들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될 때 야기될 갈등과 분열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간의 증언의 차이는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될 뿐 결코 함께 얘기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연구자는 증언의 진실성을 밝힐 수 없는 정치적·윤리적 어려움을 가졌다.

본 연구는 하나로 통일된 4·3의 역사적 진실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4·3 연구와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는 4·3의 진실성 자체보다는, 4·3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4·3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4·3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4·3에 대한 각 개인들의 기억의 차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즉 본 연구는 마을 내에서 4·3에 대한 기억들이 '진실'을 둘러싸고 어떻게 공존하고 있으며, 그 기억과 증언 중 어떤 이야기는 공식적 이야기가 되고 어떤 이야기는 공식적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맥락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II. 4·3 발발과 전개과정

1. 해방공간에서의 갈등과 4·3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은 미군에 계속 밀리게 되자, 제주도를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 보루로 설정하여, 제주도 곳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군사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민들을 대상으로 징병과 징용을 확대하고, 공출의 양도 대폭 늘렸다. 마을마다 20~30명 가량의 청년들이 징용 당해 타국으로 끌려갔고,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도 있었다. '호미'마을에도 많은 청년들이 북해도(홋카이도)의 탄광으로 차출당하였고,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딸을 서둘러 결혼시키기도 하였다.

'호미' 주민들의 삶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식량 공출과 물자 공출이었다. 어려운 살림에서도 공출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기 일쑤였고, 공출을 내고 나면 정작 자신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전쟁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강탈해갔다. 그리고 갖은 종류의 부

역을 만들어내어 마을마다 할당량을 내려보냈다. 1945년 2차 대전 말기, 미군은 제주섬에 공습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군사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군사시설 공사에 제주민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제주 민중에게 돌아갔다.

제주 민중에게 해방은 미군기의 공습과 계속된 강제 공출과 노역, 징용, 징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해방 소식이 일반 민중에게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교통, 통신시설의 미비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해방 소식은 8월 15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비로서 사실로 다가왔다. 해방이 되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마을은 잠시 행정과 치안 공백 상태가 되었다. 거기다 북해도로 징용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강제징용과 공출에 앞장섰던 ‘친일 부역자’들에 대해 보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마을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마을주민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마을의 치안 유지를 위해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마을 조직은 마을에서 똑똑하다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청년단과 자위대, 치안대 등의 형태로 구성되었고 이후 중앙에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마을 유지들을 위원단으로 하여 건국준비위원회로 조직화되었다. 그러다 9월 말경 중앙(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자 ‘호미’도 인민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다. 인민위원회의 결성과 더불어 청년·부녀·문화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인민위원회 초기에는 기존의 자생적 조직을 기반으로 주로 마을의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하였다. ‘호미’에서의 인민위원회 치안활동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치안대에서 맡았다. 치안대 활동은 주로 도박이나 숲의 나무 도벌을 막는 것이었고, 친일행위자에 대한 징벌을 행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제주의 청년단체는 크게 좌파청년단체와 우파청년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좌파청년단체는 해방 직후 청년동맹으로 결성되어 건국준비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참여하여 일제 잔재 청산과 친일파 제거, 사회개혁 등의 과제들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a, 145). 많은 청년들이 이에 참여하였고, 가장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 청년동맹은 후에 민청으로, 민에청으로 변천과정을 겪는다. 우파청년단체로는 1947년 9월 대동청년단이 결성되었지만 청년동맹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그 조직력은 미비하였다.

‘호미’에서의 청년동맹과 대동청년단은 안氏와 부氏의 대립 양상을 띤다. ‘호미’에서 안氏 세력은 마을의 부자들로 살았지만 글을 깨친 지식인 층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해방 이후 마을의 주도세력으로서 친일과 제거와 개혁에 앞장섰다. 이들은 청년동맹을 이끌었고 마을 주민들도 이들을 지지하였다. 반면 부氏는 일제시대 일제와 결탁하여 ‘호미’⁵⁾ 동백동산 벌채 허가를 받아냈다. ‘호미’간이학교가 1944년 ‘호미’공립국민학교로 승격되면서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을 위해 행정기관은 부氏에게 5년간의 벌채 허가를 주었다.

잡목을 베는 조건으로 벌채 허가를 받은 부氏가 동백나무마저 베어버리자 마을 주민들은 벌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氏는 이에 응하지 않고 숲을 나르던 차에 서북청년단을 태우고 와 청년들을 테러하였고, 벌채 사건에 관한 마을총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氏와 마을의 중심세력이었던 안氏 간에 대립이 발생하였고, 부氏가 불러들인 경찰이 안氏 청년들을 붙잡아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4·3이 발발하였다. 3·1절 시위사건과 총파업⁶⁾, 그리고 무엇보다

5) ‘곶’은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을 이르는 제주말이다.

6) 제주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를 리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면에 있는 국민학교에 모여 전도적(全島的)으로 거행하였다. 미군정은 3·1절 기념행사와 관련한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 기념집회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좌파세력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제주북국민학교에만도 3만명 가량의 군중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집회 도중 기마경찰이 탄 말에 어린이가 채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경찰이 어린이를 내버려둔 채 그냥 가려하자 모였던 군중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그 순간 경찰이 군중에 발포함으로써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이 발포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관공서와 학교까지 참여하는 전도적인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미군정은 이에 맞서 용원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 청년단체원들을 제주에 대거 내려보내 물리력으로 검거공세를 전개하였다. 경찰의 검거가 계속되자 마을청년들은 검거망을 피해 일본이나 육지로 피신하거나 입산하여 몸을 숨기게 되었고, 마을

도 ‘호미’곶 벌채사건으로 마을 내에 경찰과 서청이 들어오면서 청년들은 검거를 피해 산으로 몸을 숨겼다. 그 공백을 타서 ‘호미’마을에는 대동청년단이라는 우파청년단체가 만들어져 이전에 청년동맹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청년동맹은 안氏 청년들이 주도하였다면, 대동청년단은 부氏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장대에 의해 부씨 청년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에서는 ‘4월 16일 밤 ‘호미’리 반동 부○○를 숙청’이라고 적고 있다(문창송 1995).

무장대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호미’마을에는 또다시 검거선봉이 휘몰아쳤다. 경찰과 서청은 거의 날마다 마을로 올라왔고, 그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마을 주민들은 경찰이 올라오는 차소리만 나도 피하기 일쑤였다. 7,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소년단을 구성하여 마을 어귀 높은 동산에 올라가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이런 소년단은 중산간 마을마다 생겨났는데, ‘호미’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

‘호미’는 여러 가지로 무장대가 은신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첫째는 마을 주민들이 산사람에 대해 동조적이었으므로 양식과 의류 등의 물자 보급이 용이하였다. 둘째는 ‘호미’의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제주에는 크고 작은 기생화산이 한라산 허리께에 360여 개 솟아 있는데 이 자그마한 산을 제주사람들은 ‘오름’이라 부른다. ‘호미’마을 내에 솟아있는 7개의 오름들은 이웃 마을과의 경계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오름들을 타고 옆마을의 피꼬리 오름을 넘어서면 한라산 중허리로 연결된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호미’마을은 4·3 당시 유격대의 집결지였으며 제주도당도 이곳

에는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경찰이 주둔하여 혐의자나 혐의자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청은 고문과 수탈을 수시로 일삼아 1948년 3월 들어 고문치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1947년 말부터 중산간으로 피하기 시작한 젊은 이들은 이 일을 계기로 서청의 횡포와 미군정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무력항쟁을 결심한다. 이리하여 4·3이 시작되었다. 입산한 무장대는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를 전후해 한라산과 주위의 각 오름들에 일제히 봉화를 올리면서 제주에 있던 24개의 지서 중 11개 지서를 습격한다(제주4·3연구소 1991, 249). 이때부터 산에 오른 젊은이들은 ‘폭도’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이들을 ‘산사람’이라고 불렀다.

에 있었다. 무장대는 마을과의 유대 속에 마을의 기습시위, 삐라 배포, 봉화 올리기 등의 일을 했다.

여성의 경우 무장대 지원 활동은 부녀동맹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부녀동맹은 부잣집 딸이라 간이학교 등의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거나, 부녀야학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빈곤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는 젊은 여성들 중에는 무장대에 직접 참여하여 산에 올라가 활동하는 이들도 있었다. 부녀동맹 여성들은 또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장대 활동에 대한 선전활동을 열심히 했다. 여성들이 담당하는 무장대 지원 활동은 주로 식량과 의복 등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물자의 수거와 운반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맡았다. 이들은 머리를 땅은 사이에, 혹은 짚신 새끼를 꼬을 때 그 사이에 삐라를 넣어서 어디 어디 가서 “머리를 빗고 와”라든가 “신발을 갈아 신고 오라”든가 하는 암호로 정보를 전달하였다. 산에서는 연락하러 하루에 세 차례씩 마을로 사람이 내려왔다. 여성들은 산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마을에서 구하여 접선지역에 갖다 놓았고, 마을 내부의 동태들을 알려주었다.

5·10 선거 날이 다가오자 마을 청년들은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민들을 독려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삐라가 하얗게 뿌려져 있었다. ‘호미’ 주변의 해안 마을사람들도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중산간 마을로 올라왔다. 남한만의 5·10 단독 선거에서 제주는 무장대의 강력한 저지투쟁으로 2개의 선거구가 투표 미달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거가 무효화된다. 이에 미군정은 토벌 정책을 더 한층 강화했다. 마을의 피해상황도 점점 더 심해졌다. 토벌대와 무장대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마을주민들은 낮과 밤이 다른 생활을 겪어야 했다. 낮에는 마을에 올라온 토벌대에게 시달렸고, 밤에는 무장대가 나타나 식량과 의복을 가져갔다. 낮에는 빨갱이로 몰리고 밤에는 반동분자로 몰리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었다.

1948년 10월 중순이 되자 군인들이 ‘호미’국민학교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경찰력만으로는 제주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

식하여 4월 중순부터 본토의 경찰력과 경비대, 우익단체원들을 대거 증파했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b, 65). 응원경찰대의 주둔으로 무장대나 좌익활동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토벌대는 마을 주민 모두에게 혐의를 두고 마구잡이로 체포하였다. 1948년 10월 31일, 군인들은 마을에서 붙잡아간 8명을 총살했다. 이 날 이후 마을에 남아있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피신 생활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을 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적막한 긴장이 감돌았다.

2. ‘떡’사건을 둘러싼 증언의 차이

10월 31일의 학살 사건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미’마을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 몇몇이 한 집에 모여 떡을 만드느라 밤늦도록 불을 켜 둔 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 토벌대가 그 집을 덮쳐 5명을 총살하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이 사건은 ‘호미’마을의 4·3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토벌대가 마을에 소개령을 내리고 집집마다 불을 지른 것은 ‘떡’사건이 있고 난 3일 뒤이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기억 속에 ‘떡’사건과 소개령은 겹쳐져 있었다. 그날 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떡을 만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부○○氏(74세, 여)는 그날 떡을 만든 것은 산에 피신해 있는 마을 청년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안○○氏(60세, 남)는 다르게 증언한다. 10월 중순부터 군인이 마을에 주둔하였다가 “마을 주민이 협조를 잘 해서 피해를 안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H로 철수하였다. 그런데 11월 18일날 군인들이 H에서 ‘호미’로 올라오다가 어느 집에서 떡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산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안되겠다, 봐 줄 수 없다”고 도망가는 할머니를 쏘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웠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너희들도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안○○氏는 그날 떡을 만들었던 것은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군인들이 잘못 안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氏(68세, 남)는 왜 그날 떡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각각 다르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있었다.

'호미'마을의 4·3 역사는 50년 동안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다. 4·3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 4·3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 다르므로 하나로 통일된 4·3의 진실을 구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증언이 가지는 진실성은 모호하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과거 사건에 대한 증언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들이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자신들이 그때 겪은 일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해 준다. 그러므로 생애사와 같은 구술 역사에서, 기억이란 한편으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지만, 기억의 내용 자체는 과거 사건의 복합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호미'마을에서 위 사건에 대한 상충되는 두 가지 증언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마을 내 존재하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을 보여 준다. 안○○氏는 사건 당시 9살이었다. 그러므로 안○○氏는 그 사건을 직접 기억하기 보다 그의 가족이나 주변의 어른들에게 그렇게 전해 듣고 기억하는 것이다. 안○○氏의 형은 당시 15세의 중학생이었는데 '왓샤부대'⁷⁾에 참가하였다가 후에 토벌대에게 살해되었다. 따라서 안○○氏의 기억에는 형의 억울한 죽음, 토벌대에 대한 원망 등이 들어 있다. 무장대와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폭도'로 규정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그리고 '폭도가족'은 마을 내에서 발언권이 제한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상황에서, 과거 토벌대의 가공할 폭력에 가족이 희생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가족의 무고한 죽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4·3 폭력의 원인을 외부에서 들어온 토벌대에게 두는 형식으로 증언을 구성하였다.

반면 부○○氏는 그의 친족 몇 명이 무장대에게 살해되었고, 이 일로

7) 무장대는 시위를 할 때 서로 어깨를 걸고 마을 주위를 행진하거나 뛰면서 '왓샤! 왓샤!'하고 외쳤다. 그래서 당시 주민들은 이를 '왓샤시위'라 했고, 시위대를 '왓샤부대'라 불렀다.

그의 친족 중 젊은 남성들은 시로 가서 경찰이 되었다. 부○○氏 자신은 특별히 우익이거나 반동적 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장대에게 찍혀 밤낮으로 시달림을 겪어야 했다. 이 사실을 아는 마을사람들은 부○○氏를 멀리하여 동네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아예 말을 붙이지 않는 식으로 따돌렸다. 따라서 부○○氏는 토벌대 자체를 타기기보다 '토벌을 불러일으킨' 무장대에 대한 원망이 더 컸다. 부○○氏의 4·3에 대한 시각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일치한다. 그는 4·3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일으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폭도가족'이 아니라 '경찰가족'으로서 그는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위치를 갖는다. 이에 반해 폭도가족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외부에서 4·3 취재를 위해 '호미'마을에 들어왔을 때 공식적 증언자가 되는 이들은 경찰 출신이나 경찰 가족들이다. 연구자가 위의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개별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폭도가족'들은 안○○氏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가족'들은 부○○氏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두 이야기 중 공식적 이야기로 채택되는 것은 부○○氏의 증언이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의 글에서 '역사적 사실'로 채택된 것도 부○○氏의 증언이었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이 두가지 상충되는 내용의 증언을 모두 듣고 비교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한가지를 '사실'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 자리에서 공식적 증언자의 위치를 갖는 이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렇게 기술한 것인지 연구자는 알지 못한다. 또한 연구자는 어느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연구자는 외부인으로서 증언자간의 차이를 비교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어느 것이 역사적 진실이냐를 밝히기보다, 연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증언하느냐에 따라 증언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증언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억과 현실관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특정 이야기가 공식적 증언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이 마을 내에서 어떠한 맥락을 갖는가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마을공동체 파괴와 주민 이동

1948년 11월 18일날 떡을 만들던 집에서 일어난 학살 이후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가 '호미'곶으로 몸을 숨겼다. 토벌대는 텅 빈 마을에 불을 질렀고, 숨어 있던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이 소개령은 1948년 10월 17일 발표된 포고문에 따른 것이다. 토벌대에 의한 무분별한 학살은 그 이전에도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이 포고문이 발표되고 난 후 11월 중순부터 '대토벌 작전'이 벌어진다.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다.

4·3에서의 엄청난 인명 피해는 바로 이 초토화 작전 기간동안에 일어났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수만 명의 제주 민중이 희생됐고,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탔다. 이 시기 이전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학살의 대상이었으나, 이후부터는 80대 노인에서부터 서너 살 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학살당했다. 초토화 작전은 소개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개시킨다는 것은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의식주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사라진다는 것은 그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을 엄청난 어려움, 궁핍, 기아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제주사회는 옛부터 강한 연대와 협동구조에 기반한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농민의 대부분이 자영농이었으므로, 지주·소작 관계가 보편적인 육지와는 달리 제주사회는 친족적·혈연적 연대관계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육지에서 들어온 토벌대는 단순히 마을 주민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제주사회가 가졌던 독특한 공동체적 특성까지도 파괴시켜버렸다. 이때에 생겨난 불신과 앙금은 현재까지도 제주사회에 남아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4·3 과정에서 흔히 나타난 이러한 살해 구조는 이후 집단, 지역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4·3 초기에 산에 올라가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향하여 살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팔거나, 6·25 때 자진 지원이나 강제 징집으로 참전하여 '귀신 잡는 해병대'로 이름을 드날리는 해병대 제3

기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모두 그러한 역사를 반증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개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 '떨러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살해하는 상황에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말 한마디 못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밤에 잡혀가든지” 경찰의 비위에 거슬리면 “낮에 잡혀가든지” 어느 쪽으로든 고달프고 두려운 생활이었다.

4. 여성에 대한 폭력

4·3 과정에서 많은 남성들이 살해당했다. 특히 15~40세 사이의 남성들은 토벌대의 무차별 학살에 의해 생존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일하게 고문, 실종, 임의 처형의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는 '여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또다른 종류의 폭력을 더하여 겪었다. 4·3 당시 발생한 폭력의 주 행위자는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토벌대였다⁸⁾.

4·3 발생 직전 동백동산 벌채사건으로 인하여 서청과 마을 청년들 간에 다툼이 있던 뒤 '호미'마을 내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입산하였거나 도피 중이었으므로 마을 내에서 서청과 부딪히는 것은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갖은 고생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늘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4·3 과정에서 토벌대에 의한 여성 폭력은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크게 성적 폭력과 강제결혼, 그리고 대살(代殺)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적 폭력의 경우를 보면, 여성에게 행해졌던 폭력은 남성에게 행해졌던 폭력과는 구별되어 대개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입산자

8) 4·3 과정에서 토벌대 뿐만 아니라 무장대에 의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어났다. '호미'마을에서는 경찰과 결혼하려 했던 여성이 암살 당하기도 했으며, 인근 마을에서는 무장대에 의해 우익인사의 아내나 딸에 대한 집단강간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다. 주민들의 표현에 따르면, 서청은 마을에서 “홀어머들 따먹는” 일을 서슴치 않고 행했으며, 그들은 “아무에게나 덤빌 수” 있었다. 여성의 몸은 ‘주인이 없으면’ 침범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서청은 여성의 몸을 ‘정복’함으로써 그녀의 남편, 부모,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였고, 피해 여성의 몸에 고통을 각인시켰다. 즉 여성의 몸에 서청의 권력이 행사되었던 것이다. 서청은 산에 도피 중이던 젊은 여성을 붙잡았을 때는 집단적으로 강간하였다. 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호미’곳 ○○물굴에서 잡혀간 그 날 트럭 안에서 토벌대들은 공격을 많이 올렸다고 신이 나서 떠들더니만 H국민학교에 이르러서는 열 여덟, 스무살 가량의 처녀들을 골라 강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성폭력은 수용소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며, 성폭력을 당한 후 제주사회에서 살 수 없었던 여성들 중에는 자신을 성폭행한 군인을 따라 육지로 가는 이들도 있었다.

또다른 폭력의 양태로 강제결혼이 있다. 서청은 이북에서 피난 오면서 자신의 모든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정착하고자 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정착의 기반으로 여성을 이용하였다. 서청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강간한 후 결혼을 요구하거나, 그 여성의 남성 친족을 불모로 결혼을 강요하였다. ‘호미’마을에서도 서청이나 군인과 결혼하여 마을을 떠난 여성들이 몇 명 있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한국전쟁사 I』(국방부, 445-446)에는 제주도에 파견된 군인들 중 ‘뒷날 제주도 여성과 결혼한 사병이 적지 않았다’고 적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인들이 제주도에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 결혼의 희생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은폐한 채, 여성을 자기 출세의 도구로 이용한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역사가 권력자의 입장에서 권력없는 집단의 경험을 어떻게 은폐시키고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침묵당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기록되었

기' 때문에 '진실'이 되어버린다. 여성의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침묵은 여성의 경험을 담론화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담론 구조 속에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수용하고 그 의미를 보존하는 언어로 읽혀진다. 그러므로 여성의 침묵은, 바로 그 침묵이 수반하는 이미지로 가부장적 문화에 참여하게 된다. 대변자가 부재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경험을 여성들 스스로가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에만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변화할 수 있다(김은실 1994). 그러므로 여성이 부재한 모든 기록된 역사에 대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경험에 기반하여 새로운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또 역사를 재해석하고 수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여성 중심의 언설을 생산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마지막으로 대살의 경우를 보면, 서청은 젊은 여성에게는 '서방 내놓으라'고, 40이 넘는 여성에게는 '아들을 내놓으라'며 폭력을 일삼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 얼굴 할 것 없이 아주 야만적으로 두들겨 뺐다"고 한다.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들이 폭력을 피해 도망간 공간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행해졌을 모든 폭력을 대신 감당해야 했다. 여성들에 대한 테러는 '남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남성의 돌아옴'으로만 중단될 수 있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빨갱이년', '폭도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을 대신해서 폭력과 죽음을 겪었다. 여성들은 이런 폭력을 피해 숨어보기도 하지만 '아이가 있는' 조건은 도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아이 때문에 숨을 수도 없어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4·3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된 사례들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호미'마을에서 동백나무 벌채사건으로 인해 부氏 집안 청년들이 무장대의 표적이 되어 한 청년이 살해당했을 때 장례에 모인 부氏들은 집안 회의를 하였다. 몇몇 부氏 청년들은 이미 무장대의 감시를 피해 시(市)로 가서 경찰이 되어 있었다. 집안회의에서는 마을 내 모든 부氏들이 서로 넘어가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마을 내 무장대의 '세포'들이 감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기가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여자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몸을 피하기로 하고 마을을 떠났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남성 피의 우월성이라는 통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부계가족 제도가 사회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자신의 가계(家系)를 떠나지만, 남성의 피는 계보의 중심을 이루어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남성혈통 중심주의는 남성 혈통의 보존을 위해 여성의 피를 대속물로 삼게 하였다. 또한 4·3 과정에서 여성들이 남자형제나 집안을 위해 토벌대와 강제결혼을 했던 것은 남성 생존을 위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 것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여성이 갖는 열등한 지위가 4·3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4·3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화시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깊은 연속성을 갖는다.⁹⁾ 일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것을 폭력으로 명명하지 않음으로써 비가시화되고 따라서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 되어왔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을 침묵시킨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폭력'이나 '인권에 대한 침해'로서보다는 여성이 속한 집단에 대한 수치나 불명예로 이해되어왔다.¹⁰⁾ 여성의 순결성

9) 크로아티아 여성 인류학자인 Maria Olujic(1996)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 공간에 관한 글에서, 평화시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그는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여성의 정조를 가족과 친족의 명예의 상징적 저장소로 인식하는 평화시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전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여성의 몸을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남성 집단의 사회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강간과 성폭력은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두 가부장적 집단체 사이의 명예와 수치의 상징적 경쟁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명예와 수치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전쟁공간과 성고문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족과 친족의 수치로 전환시켜 여성들이 자신의 체함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 그는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전시상태에서 발생한 여성 피해는 평화시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피해의 연속임을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4·3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0)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인 Theo van Boven은 무력 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글(1998)에서, 그동안 국제법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명예에 대한 범죄'로 취급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에 강간이 명예나 도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된다면, 피해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수치심

은 가부장적 공동체의 순결을 상징하고 여성의 모성은 공동체 정체성의 보루로 인식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과 모성의 파괴는 공동체 전체의 수치이며 상실이다. 그러므로 강간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침묵은 남성의 수치를 보호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강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4·3 극복과정

1. 돌아온 마을 : ‘남성이 없는 공간’

입산 금지가 풀린 것은 1954년 가을이었다. 그해 9월 21일 제주도 경찰국장은 한라산 금족지역의 전면 개방을 발표하였다. 또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되었던 마을 성곽 보초 임무도 철폐시켰다. 9월 21일 당일자 신문은 “이는 실로 4·3사건 발생 후 7년 6개월 18일만에 제주도 전역이 평시 체제로 환원된 것”이라고 적고 있다(아라리연구원 1988, 194). 중산간 마을사람들은 입산금지가 풀리자마자 자신이 살던 마을을 찾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주도 당국과 정부도 난민 복귀계획을 세우고 정착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들은 고향을 찾아 올라왔지만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곳은 부모, 자매와 형제, 이웃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혹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올라가 재건할 벼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 10여 개의 자연 마을들로 이루어졌던 ‘호미’는 본동과 창선동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사라진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집터를 내버려 둔 채 본동이나 창선동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이 생기게 되고 그 피해자는 집단에 의하여 “더럽다”, “망쳤다”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범죄를 보고하거나 거론할 수 없게 된다.

당시 재건된 마을은 전체 가구의 약 70% 정도가 홀어명 가구였다. “그 때 홀어명 천지. 남자들은 다 쏘아 죽었으니까”라는 할머니의 말처럼 4·3 과정에서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죽고 여자들만 생존하였다. 이제 살아 남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죽자해도 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홀어명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런 모진 삶을 견뎌왔다.

여성들은 4·3이 끝나고 돌아온 마을을 ‘남성이 없는 공간’이라고 불렀다. 남성이 없는 공간은 곧 남성으로 인해 매개되던 모든 친족관계들과 협력체계들이 파괴된 공간임을 뜻한다. 자신의 마을에 대해 양반촌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은 폐허가 된 마을을 떠나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들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3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만들어낸 관계는 ‘홀어명 네트워크’였다. “홀어명끼리 베풀하며 친목도 하며 돌아가며 살았주게”라는 그들의 표현처럼 여성들은 이 관계를 통해 위로를 받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회관계를 일구어냈다.

한편 돌아온 마을은 여성들의 표현처럼 완전히 ‘남성이 없는 공간’은 아니었다. 돌아온 가구의 70%가 홀어명 가구였지만 나머지 30% 가구에 남성이 존재했다. 마을사람들은 “얼마나 시국 때 피해가 컸는가하면 시국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은 이 몸뚱이밖에 없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남은 몸뚱아리는 생물학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이기도 하다. 마을사람들은 4·3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이미 남아있는 몸 안에는 ‘역사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 안에 체화되어 있던 가부장제의 문화와 역사는 마을 복원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재현되었다.

2. 홀어인가구와 남성가구와의 경제적 격차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간에 일어난 수눌음¹¹⁾은 성별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였다. 나무를 베어 운반하고, 집을 세우는 데는 육체적 힘이 많이 필요하였고, 특히 가축을 이용하는 일이 요구되었다. 집안에 남성 노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집의 남성 노동력을 빌려야 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밭갈이나 쟁기질을 할 때는 남성 노동력을 빌려야 했다. 그런데 4·3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남성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젊은 남성은 마을 내 아주 극소수였다. 집안에 남성 노동력이 없는 홀어명들은 이들 생존한 남성들과 수눌음을 맺었다. 그런데 수눌음의 노동교환은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수눌음은 하루동안 도움을 받으면 하루를 갚는 형식이지만 재건 당시 여성들은 남성노동을 하루 빌리면 5일 동안을 일해주어야 했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러 명의 여성들과 수눌음을 맺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노동과 남성노동간에는 권력 관계가 존재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노동력을 빌리고자 할 때 남성은 거부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여성노동과 남성노동을 교환할 때 그 결정권은 남성이 가졌다. 따라서 남성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교환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남성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해야 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억울함'을 느끼고 때로는 '서러움'에 울기도 했지만 그것을 '옛날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4·3 이후 여성이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은 솥을 구워 팔거나 고사리를 비롯한 나물물 캐어 파는 일이었다. 여성들은 근대교육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거나 관(정부)을 상대로 보조를 요구할 줄 몰라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은행을 통해 돈을

11) '수눌음'이란 육지에서의 '품앗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농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노동을 교환하는 형태이다.

대출받아 큰 규모로 장사를 하거나 목축을 시작하였고, 면사무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남성들은 4·3 극복과정에서 민보단장, 특공대장, 복구위원장, 재건위원장 등의 공식적 지위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몇몇의 남성들은 이러한 위치를 십분 이용하여 국회의원이거나 면장(현재의 읍장)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4·3 이후 제주도에는 재건 바람과 함께 기계 도입이 시작되었는데, '호미'마을에도 정미소가 들어와 몰방애(몰레방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몰방애는 자연마을 안에 동네 단위마다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육지에서의 우물터와 같은 기능을 하던 곳이다. 원래 제분작업은 여성의 일로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몰방애를 짚으면서 '방아타령'을 부르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제분작업이 기계화되면서 여성노동에서 남성노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정미소는 정치적 세력이 없고서는 운영할 수 없어서, 어느 마을이건 그 마을의 세력가가 소유하였다고 한다. '호미'마을에서는 부락 복구위원장과 구장을 거쳐 면의원을 지낸 김氏와 4·3 당시 경찰 세력이었던 부氏가 각각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남성들은 육지에 쉽게 나갈 수 있었고, 또 육지에서 몇 년씩 살다 오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제주도 밖을 나간 경험이 없었다. 당시 제주도는 이남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이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4·3으로 인해 모든 물자가 귀한 때였으므로 육지에 비해 물가가 턱없이 비쌌다. 육지에 나가 본 경험이 많은 남성들은 이를 이용해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장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식이 있는 홀어머들은 가족들을 남겨두고 육지에 나갈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여성이거나 처녀들은 육지로 나가 공장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육지란 '두려운 곳'이었다.

이렇듯 4·3 이후 여성과 남성이 갖는 위치와 경험의 차이로 인해 남성이 있는 가구와 홀어머 가구와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더 심해져 갔다.

3. 친족사회 붕괴와 토지의 이동

'호미'마을은 육지 농촌사회와는 달리 옛부터 마을 내혼을 선호하여왔다. 육지 농촌에서는 처가는 멀수록 좋다고 해서 양반 사회일수록 마을 외혼과 원처혼을 장려하지만, '호미'마을은 마을 내혼이나 인근 마을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교 원칙에 따른 부계 중심의 친족제도를 가지면서도 육지와는 달리 마을 내혼과 핵가족 형태를 취하는 것은 '호미'마을이 갖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땅은 화산회토로서 육지의 토지에 비해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낮다. 중산간 마을들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중산간지대의 숲이나 목장을 화전하여 경작지로 일구어왔다. 따라서 중산간 마을의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지에 서처럼 토지가 아니라 노동이었다. '호미'마을에서 마을 내혼이 장려된 것은 노동 중심의 농경제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호미'마을의 이러한 특성은 4·3으로 인한 친족사회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호미'마을은 한 마을 내에 시집과 친정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마을 공동체 파괴는 친족 사회의 붕괴를 초래했고, 이것은 곧 개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상실을 의미했다. 당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때이므로 개인의 모든 필요들은 대부분 친족관계를 통해 충족되었다. 더욱이 부계 중심의 친족체계에서 남성(아버지, 남편)의 죽음은 그로 인해 연계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정체성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으로 인식되며, 남성은 자신의 남성성에 의해 공적 영역에 자리매김 된다(Ramphel 1996, 100). 그러므로 아내의 죽음이 그의 삶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지는 몰라도 그의 사회적 성원권이나 정체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의 죽음으로 경제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남성은 쉽게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 '호미'마을의 여성들이 비록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계 중심의 친족체계 속에서 여성 스스로 대표적 성원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여성을 친족사회 속에 매개해 주는 것은 언제나

나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4·3을 겪으면서 '호미'마을의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을 잃고 홀어명이 되었다. 홀어명 중에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시집과의 관계가 단절된 여성들이 많았으며, 특히 4·3 과정에서 부모마저 죽은 여성들의 경우 친정 쪽으로나 시집쪽으로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이 여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시집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4·3으로 인한 친족사회의 붕괴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인 토지의 상실을 초래하였고, 어디에도 적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남성은 여성과는 반대의 위치에 있었다. 제주도는 제사 봉사와 가계 계승을 위해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양자를 들인다. 입양은 근친간에 주로 이루어지며, 제사 상속은 토지 상속과 일치하므로 양자가 제사를 상속받는 조건으로 그 집의 토지도 모두 상속받게 된다. 4·3이 진정된 후 '호미'마을에서도 입양과 이에 따른 토지 이동이 복잡하게 일어났다.

4·3 후 여성들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은 평화시 위계화된 성별 체계 속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결혼권과 재산권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부계 혈통중심의 가족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이름을 잇고 혈통을 잇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졌으며, 재산 및 가계의 상속 대상이 되는 주체였다. 그러나 여성은 이 사회에서 불안정한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해야 했다. 여성과 남성은 4·3이라는 동일한 역사 과정 속에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각각 다른 삶의 형태와 생애과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마을의 재건

1. 복원된 마을공동체의 리더쉽 구조와 혼인 관행의 변화

'호미'마을은 안씨에 의해 설촌이 된 마을이었다. 4·3 이전에는 읍이

나 시에서 ‘호미’마을 하면 안씨촌(安氏村)이라고 하여 “안氏 말이려면 알아주었다”고 한다. 안氏는 마을 가구의 2/3를 차지했으며, 4·3 당시 ‘호미’마을사람들이 소개되었던 해안가 마을인 H에서 5km 떨어진 ‘호미’마을까지 올 때 안氏 땅을 밟지 않고는 오지 못할 정도였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나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후 입산한 사람들도 마을의 주도 세력이었던 안氏 집안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4·3 이후 안氏 가계는 거의 몰락하다시피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중산간 마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주4·3연구소 현장채록팀이 기술한 「한림면 현장조사서」(1991)를 보면, 명월리는 4·3 이전 오氏 집안이 당시 가호의 50%를 차지하며 마을의 주도 세력을 이루었고, 금악리는 박氏 집안이 주도 세력을 이루었는데 4·3 과정에서 입산자 가족에 대한 보복 학살을 당하면서 가계가 거의 몰락하였다. 이처럼 4·3은 마을공동체 내 권력구조의 재편성을 가져 왔다.

4·3 과정에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도화 작전으로 인해 ‘호미’마을에서는 현재 나이가 65세에서 80세까지의 남자가 거의 없다. 이 때 살아남은 몇 명이 전략촌인 창선동에서 민보단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고, 본동인 웃‘호미’의 재건과정에서 새로운 마을지도자로 등장하였다. 4·3 당시 10세 이하의 어린아이였던 남성들이 마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는 1980년대 전까지 이들은 마을 행정이나 마을 경제에서 지도자로서 리더쉽을 행사하였다. 반면 살아남은 남성들 중에서 산사람 편에 섰던 사람들은 마을 내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었다. 4·3 당시 토벌대에게 붙잡혀 수용소나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마을에 돌아와도 정착하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다.

4·3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리더쉽 구조가 바뀌면서 이에 따라 재산 소유의 변동이 일어났다. 4·3 극복과정에서 부氏 세력들은 안氏 세력 때문에 4·3 때 마을이 당한거라며 안氏의 복귀를 막았다. 이에 안氏들은 ‘호미’마을에 있던 집과 땅을 팔아 시나 육지로 옮겨가 버렸다. 이 과정에서 토지매매가 성행하였는데, 당시에는 몇 년 농사를 짓지 못한 땅인

데다 소나 말이 없어 개간할 처지가 못되어 땅값이 아주쌌다. 『○○읍지』를 보면 과거에는 읍 내에서 '호미'마을의 땅값이 가장 비쌌다고 하지만, 4·3 이후 60년대까지 '호미'마을 땅값은 제주도에서 가장 싼 것으로 떨어졌다(제주도 1998). 부락복구위원장과 구장을 거쳐 면의원을 지낸 김○○氏(78세, 남)는 면의원 시절 도에서 1정보당 1만원씩의 보조를 받아 30정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리고 4·3 당시 무장대의 반대세력이었던 부氏들도 국가의 보조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였다. 4·3 이후 마을 내 재산변동에 대해 안○○氏(53세, 남)는 “시국 후에는 잘 살던 사람들은 못 살게 되고, 못 살던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4·3 이후 마을 내 정치적·경제적 리더쉽 구조의 변화는 마을 내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호미'마을은 중매결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70년대까지도 연애결혼을 하면 흠을 보았다고 한다. 결혼은 보통 중매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문이다. 4·3 이전에는 '호미'마을에서 가장 성했던 가문이 안氏 집안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안氏와의 혼사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조선시대에는 제주도 명가문에서 안氏 가문의 사위로 본동에 정착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4·3 이후 '호미'마을에서 안氏는 리더쉽을 잃어버렸다. 특히 연좌제의 영향으로, 가족들 중에 토벌대에 의해 죽은 이가 있으면 남은 이들도 '폭도 가족'이 되어 두고두고 명예를 저야 했다. 이런 이유들로 '호미'마을 내에서는 서로 결혼하지 않는 관계들도 생겨났는데, 4·3 당시 산사람의 대표격인 안氏와 경찰세력의 대표격인 부氏는 중매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4·3 당시의 입장과 활동의 차이는 마을 내 서로 죽고 죽이는 감정관계를 일으켰고, 이러한 감정 문제는 반공체제 하에서 이후 마을 내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간의 인간 관계까지도 지배하였다. 그런데 '호미'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공공연한 비밀'로 침묵되어진다. 4·3 이후 파괴된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간에는 4·3의 갈등과 감정 문제를 내포하는 일체의 언설들

은 공식적 장에서 발언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서로가 모르는 척 덮어두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공식적 이야기로 표면화될 때, 마을 내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지 두렵기 때문이다.

2.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을 '역사'

본동에 올라온 후 재건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리지'(理誌)의 형태로 마을 역사서를 만들고자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과정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다.

4·3으로 인해 '호미'마을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 마을이 불타버렸었기 때문에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없는 집도 드물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 토벌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과 무장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호미'마을에서도 토벌대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크기는 했지만 무장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한 마을 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는 격이다보니 마을 내에 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미'마을의 남성들 중에는 4·3 당시의 상황들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해 둔 이들이 몇 명 있었다. 이들은 마을에서 '리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자신의 기록을 토대로 4·3에 관해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자신의 기록들을 모두 소각해버렸다. "내가 이만큼 뿔 썼다가 소각시켜버렸어. 역사를 못 만드는 바람에 그걸 트집잡으려고 해서 내 태워버렸어" 고○○氏(68세, 남)는 '호미'마을이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까워하였다. "내가 잘한 건 잘한거고 못한 건 못한거고 그걸 써야지, 역사를 만들 바에야 왜곡된 역사, 거짓 역사를 만들어서 뭐 하겠냐"고 하면서 그 장본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4·3 당시의 초토화과정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김○○氏(78세, 남)는 4·3 당시의 피해상황을 두 권의 노트에 적어 하나는 항아리에 담아 땅 속에 묻고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다녔었다고 한

다. 그러나 그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그 기록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4·3 이후 30~40년간 지속된 반공 군사 정권체제 하에서의 '레드 콤플렉스'와 연좌제의 경험은 '호미'마을사람들로 하여금 4·3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호미’에도 지금 명백한 얘기를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얽히고 얽히고”, “‘호미’에서 뭐 하려면 만나는 사람마다 틀릴 꺼야. 왜곡해서 감추려고 하니까” 마을사람들은 4·3을 연구한다고 마을 내에 알려진 연구자에게 이런 말들을 하곤 했다. 고○○氏는 “우리 ‘호미’ 부락이 풀어나가야 할 일이 하도 많은데 가만 보면 바른말 하는 사람이 나쁜놈이 돼. 그건 왜냐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하나[하는 거지]”라며 마을사람들은 4·3을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마을사람들이 4·3을 덮어두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특히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어떻게든 남편의 무고함을 밝혀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호미’마을에서 연구자가 만난 여성들은 4·3을 ‘시국’이나 ‘사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4·3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4·3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4·3 이후 50년간 이들은 분노와 좌절과 체념, 그리고 가슴 속 깊이 응어리진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다. 아픔의 원인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그 고통을 참을만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치유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던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이들 여성들은 ‘나라’에서 남편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4·3 관련 행사들에 부지런히 찾아다니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만 하게 될 뿐이어서 또다시 ‘부아가 치미는’ 분노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이라 생각하여, 이제라도 세상을 알기 위해 뉴스를 열심히 본다. 이제까지 자

신들이 살아온 삶에 비교할 때 연속극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재미가 없다. 이것은 ‘호미’마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제민일보 4·3취재반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노인회관에 모인 여성들은 뉴스를 함께 보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고, 그들의 세상사에 대한 정보는 그들 자녀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다.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과 헌신을 인정받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아래 세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들의 경험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4·3을 겪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헌신에 대해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시국 밖에는 원망할 데가 없는, 철천지 한”으로 여기고 있다. 여성들의 4·3 경험은 사회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조차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여성들의 경험을 표현하고 의미화하는 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V. 맺으며

1990년대 들어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4·3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마을별 현지조사가 전개되었지만, 4·3 연구자나 기록자들은 현지조사를 할 때 대부분 남성을 주요 증언자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인터뷰를 옆에서 지켜보는 여성들은 “인터뷰한 남성이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곧잘 하였다. 여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남성들이 공식적인 장에서 4·3을 이야기하는 방식 때문이다. 인터뷰를 할 때, 남성들은 자신의 무장대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거나 빼 버리고, 토벌대 활동에 대해서는 과장하거나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4·3 당시 젊은 남성들은 무장대 편에서 입산하거나, 경찰 편에서 토벌

대가 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도피하거나, 군대에 자원하는 길 밖에 없었다. 그런데 4·3 초기에는 무장대의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무장대 편을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에 웅원경찰력이 대거 투입되어 대토벌이 시작되면서 무장대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향'을 택하였다. 현재 살아남은 남자들은 전향하여 토벌대가 되거나 군대에 가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은 잊어버리고, 어떤 부분은 과장하는 것은 현실의 조건에 기인한다. 만일 현실의 조건이 변화하여 4·3이 정당한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들이 4·3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노동했는가, 그리고 돌아온 마을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성들의 이런 경험은 4·3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과 평가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4·3에 대한 역사 해석의 틀 자체를 바꿀 때에야 기록된 역사로 재구성될 수 있다. 즉 역사 서술에 있어 무엇을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4·3 역사 서술에서 왜 군사적 사건들만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되고, 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그리고 마을 재건을 위한 노동과정은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가.

역사가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역사연구도 남성성에 제한될 수 없다. 역사의 총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과거에 대한 연구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4·3 역사의 총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재생된 기억을 연구자가 편집하여 전체 제주사회와 4·3의 맥락 속에 위치하도록 재구성한 마을 역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호미'마을과 4·3에 대한 총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실일 뿐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로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하며, 연구의 관점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비판과 검토작업이 필요하다.

4·3은 제주도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그러나 기존 4·3 연구는 진상 규명이라는 당면 과제 아래 정치사 중심의 역사학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4·3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을 통해 4·3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방법론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4·3의 역사적 의미를 사회문화적으로 조명하여 4·3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우며, 4·3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1967. 『한국전쟁사 I -해방과 건군』. 大韓民國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 김민규, 1975. 『○○읍지』. 제주: 제일인쇄사.
- 김봉옥, 1987. 『제주통사』. 제주: 제주문화.
- 김백일, 1994. 역사기행- 수난과 항쟁의 땅 제주도. 『역사비평』, 제25호. 여름. 역사문제연구소.
- 김성례, 1991a.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구술 생애사의 서사분석. 『한국여성학』7집, 한국여성학회.
- , 1991b. 제주 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신학 연구』, 제4권, 서강대학교 종교·신학 연구소.
- , 1998.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 4·3을 중심으로.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1998년 8월 21일~8월 24일. [제주: 그랜드호텔]
- , 1999.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정치.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김순태, 1999.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

비평사.

- 김승윤 구술, 1990. 『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 오성찬 편집. 서울: 뿌리 깊은나무.
- 김영돈, 1982. 『제주도 민요 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은실, 1994.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집. 한국여성학회.
- , 1998. 성과 문화.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서울: 일조각.
- , 1999.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비교문화적 논쟁. Kim Eun-Shil, 1998. "Studying My Own Culture as Feminist Practic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4, No. 4.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김인화, 1963. 4·3사건 이재민 원주지 복구상황 : 2차년도의 사업 계획. 『제주도』 제8호.
- 김종민, 1998. 제주 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제42호. 봄. 역사문제연구소.
- , 1999. 4·3 이후 50년.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김진명, 1993. 『굴레 속의 한국여성』. 서울: 집문당.
- , 1994. 전통적 담론과 여성억압. 『한국문화인류학』. 제2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창후, 1993.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제20호. 봄. 역사문제연구소.
- 김혜숙, 1977. 『제주도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가정학과.
- 남석진, 1989.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9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문창송, 1995.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소위 제주도 인민 유격대투쟁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주: 대림인쇄사.
- 박명립, 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 1999.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 제주 4·3과 한국 현대

- 사.『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박은정, 한인섭 엮음. 1995.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서중석, 1999.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이해』. 제주: 제주문화.
- 신행철, 1989. 『제주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서울: 일지사.
- 외. 1995.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
- 심영자, 1992.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탐라문화』제1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아라리 연구원 편. 1988. 『제주민중항쟁 I』. 서울: 소나무.
- , 1989. 『제주민중항쟁Ⅲ-정기간행물·보고서 자료집』. 서울: 소나무.
- 양정심, 1999.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항쟁의 배경.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양조훈, 1994. 4·3취재 6년: 무참히 왜곡된 역사. 『역사비평』. 제25호. 여름. 역사문제연구소.
- 오금숙, 1998.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1998년 8월 21일~8월 24일. [제주: 그랜드호텔].
- 오성찬, 1987. 『제주의 마을』. 반석.
- 유철인, 1998a. 잃어버린 마을의 살아남은 사람들.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서울: 학민사.
- , 1998b. 제주 4·3과 마을공동체. 『제주학, 세계와 미래로』. 제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제14차 전국학술대회. 1998년 11월 13일~14일. [제주: 제주대학교]
- 윤택림, 1994. 기억 속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 , 1994.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여성주의 역사학에 대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10집. 한국여성학회.
- , 1995. 지방, 여성, 역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사연구. 『한국여성학』제11권.
- 이기욱, 1993. 환경과 제주문화-제주문화의 생태인류학적 연구 서설. 『탐

- 라문화』제13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남희, 1994. 서구 女性史 연구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 서울: 일조각.
- 이영훈, 1991.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과 사회경제구조. 『제주항쟁』. 창간호, 제주4·3연구소.
- 임대식, 1999. 제주 4·3항쟁과 우익청년단.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정현백, 1994. 여성사연구의 이론과 방법. 『역사비평』. 26호. 가을. 역사문제연구소.
- 정해구, 1999. 제주 4·3항쟁과 미군정정책.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조성윤, 1998. 잃어버린 마을과 4·3의 현재성.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서울: 학민사.
- 조혜정, 1981.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아세아여성연구』. 제20집.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 _____, 1988.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a. 『4·3은 말한다 1』. 서울: 전예원.
- _____, 1994b. 『4·3은 말한다 2』. 서울: 전예원.
- _____, 1995. 『4·3은 말한다 3』. 서울: 전예원.
- _____, 1997. 『4·3은 말한다 4』. 서울: 전예원.
- _____, 1998. 『4·3은 말한다 5』. 서울: 전예원.
- 제주도, 1993. 『제주의 무속 I』. 제주문화자료총서1.
- _____, 1997. 『제주실록: 1945-1996』.
- 제주도의회, 1997. 『제주도 4·3 피해조사보고서』. 개정 증보판.
- 제주4·3연구소, 1989. 『이제사 말했수다』 I·II, 서울: 한울.
- _____, 1991.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 최숙경, 1994. 한국 여성사 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 서울: 일조각
- 최장집, 1987. 한국의 초기 국가형성의 성격과 구조, 1945-1948: 정치 및 사회단체의 발생, 변화, 소멸을 중심으로. 『산업사회연구』. 제2집.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서울: 한울.

-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서울: 일지사.
- 태혜숙, 1997.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제13권, 1호. 한국여성학회.
- 한림화, 1991. 『한라산의 노을』상·중·하. 서울: 한길사.
- 한정운, 1986. 『전통적 여성역할 규범에 대한 제주도 여성들의 태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 허춘, 1996. 說話에 나타난 濟州 女性考. 『탐라문화』제16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기영, 1979. 『순이삼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1983. 『변방에 우짖는 새』.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1993.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 『역사비평』. 20호. 봄. 역사문제연구소.
- , 1994. 『마지막 테우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현길언, 1995. 『우리들의 조부님』. 서울: 동아출판사.
- 현용준, 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집문당.
- 황상익, 1999. 의학사(醫學史)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Boven, Theo van. 1998. 무력갈등하의 여성의 인권. 『아시아의 여성인권 : 무력갈등과 성폭력』.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외 4개 단체 주최.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1998년 9월 16일~17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 Coomaraswamy, Radihika. 1997. "Violence Against Women , Its Causes and Consequences". *The Conference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and Armed Conflict Situations*, 1997. 10. 31~11.3 .
- Das, Veena. 1996. "language and Body: Transactions in the Construction of Pain", *DAEDALUS*. winter.
- Eisenstein, Zillah R.. 1996. *Hatreds: Racialized and Sexualized Conflicts in the 21st Century*.
- Geiger, Susan N. G. 1986. "Women's Life Histories: Method and Content". *Signs*. vol.11, No.2, winter.
- Haggis, Jane. 1990. "The feminist research process-defining a topic". L.

- Stanley(ed). *Feminist Praxis: Research, Theory, and Epistemology in Feminist Sociology*. Routledge.
- Jones, Ann Rosalind. 1985. 몸으로 글쓰기: 여성적 글쓰기의 이해를 위하여. 『여성 해방문학의 논리』.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1990. 서울: 창작과 비평사.
- Klein, Renate Duelli. 1983.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방법: 여성 해방주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여성학의 이론』. 정금자 역. 1986. 서울: 을유문화사.
- Lerner, Gerda. 1979. *The Majority Finds Its Past*.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 1997. *Why History Matter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Dougall, Gay J. 1998.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 Oakley, Ann. 1981. "Interviewing Women: A Contradiction in Terms". H. Roberts(ed.). *Doing Feminist Research*. Routledge and Kegan Paul.
- Olujic, Maria B. 1996. "Embodiment of Terror: Gendered Violence in Peacetime and Wartime Croatia and Bosnia-Herzegovina",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 Punch, Maurice. 1985. 『현장연구의 정치학과 윤리학』. 유재정 역. 서울: 교육과학사.
- Ramphele, Mamphela. 1996. "Political Widowhood in South Africa: The Embodiment of Ambiguity". *DAEDALUS*. winter.
- Reinharz, S. ed.. 1992. "Feminist Oral History".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arz, Vera. 1996. "The Pane of Sorrow: Public Uses of Personal Grief in Modern China". *DAEDALUS*. winter.
- Scott, Joan W. 1988. *Gender and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Routledge.

- , 1992. "Experience".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J. Butler and J. Scott. eds. New York: Routledge.
- Spivak, Gayatri.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he Personal Narratives Group. 1989. *Interpreting Women's Lives*. Indiana University Press.
- Warren, Carol A. B. 1988. *Gender Issues in Field Research* SAGE Publications.
- Young, Allan. 1996. "Suffering and the Origins of Traumatic Memory", *DAEDALUS*. winter.

The History of Cheju 'Homi' Village in the Life History with a Focus on the 4·3

Lee, Jung-joo

Summar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make the history of 4·3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with the help of Cheju women's oral testimony.

This study is also attempting to reveal how Cheju people's 4·3 experience differ from the nation's historiography which has degraded the accident as a mere communist riot, by re-presenting Cheju women's 4·3 experiences from victim's point of view. And by doing so, this work tries to challenge predominant interpretation of the 4·3 made by the governmental authority.

And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fact that women and men have experienced the same reality of 4·3 in a different way according to their gender, setting up gender difference as a main tool for the history analysis.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is matter have explained the '4·3' by binding all the Cheju islanders, regardless of their gender, under the universal category, pretending gender neutrality. Such approach on this issue is, however, no more than an overgeneralization of men's case based on their experiences and perspective. Let alone its failure to deal with women's historical role, this approach even distorts the facts on women's experiences. So this study is to visualize women's experiences and activities which have been excluded and marginalized by the existing 4·3 discussions, and furthermore to

question and challenge the stereotype on gender role as well as the androcentrism in the conventional 4·3 discussions.

To achieve these goals and to collect original sources of women's experience who underwent 4·3, a fieldwork was conducted in a mountain village. During the fieldwork, I kept the record of individual women's life history with a focus on the 4·3 experiences. And as supplementary materials, this study referred to the materials such as printed matter, literary works, and movies that dealt with related issues. And I participated in several symposiums and cultural performances held in Cheju and Seoul.

This content is constituted with 4 parts in its chronological order.

Chapter 1 deals with the issues at hand, the perspective and the method of the study, and the fieldwork process. The fieldwork process is described with an emphasis on the ethical problems which is especially sensitive issue in 4·3.

Chapter 2 remakes the rising 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4·3. And it shows how the conflict of the reserched village was expressed in the liberated zone, and in what way it affect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4·3, and finally what role the women's took in that process.

Chapter 3 shows what kind of changes were made in the villages after the event, and how the survivals coped with such changes in terms of the women's experiences. Chapter 4 continues to analyze how the gender division in labor and the androcentric order were reorganized and sustain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whole village community was destroyed completely and unbalanced sex ratio began to appear due to 4·3.

In chapter 4, I attempted to deal with the issue of how the leadership system of the newly built village was reorganized after 4·3

and to reveal how the history of a village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people concerning 4·3

4·3 is the accident that has made a huge impact on almost every part of the Cheju society. The existing 4·3 studies, however, tend to give more weight to the political history pursuing historical facts because of the social need. At the present situation, this study temps to expand the scope of 4·3 research and to grope for the possible many different accesses to 4·3 study by approaching the matter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Such work will help to get fuller understanding of 4·3 by including the 'lost half' in the previous studies, and it will also provide the experimental source that will help to make a new paradigm of history that uses gender difference as a major analytic tool.